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3월 27일(주일) 제1386호



다섯 번째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계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일상의 작은 실천 이어가기
제철 과일·채소, 실내온도 20도, 봄꽃 보며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 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창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창 1:1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다섯 번째 주제는 '계절'이다. 기후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뚜렷한 사계절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3월 다섯째 주 온누리교회 성도

들은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시켜 나간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제안하는 계절을 회복시키는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은 '제철 과일·채소 먹기', '실내온도 20도 유지하기', '봄꽃 감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다. 큰 일고차로 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환절기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게 좋다. 지나치게 높은 실내온도는 대기오염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나부터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은 지난 3월 2일(제 수요일)부터 4월 16일과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빛',

'공기', '물', '땅', '계절', '생명', '인간'을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대중교통 이용하기', '샤워할 때 물 아끼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장욱이 권사(서산온누리교회)는 천연수세미를 사용하는 습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있고, 송명화 자매(강동 프라미스대학부)는 텀블러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있다<관련기사 4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한결같은 주의 생명'

3월 28일부터 4월 2일까지 오전 6시 중앙성결교회 본당
생명주일예배 4월 3일 오후 2시 중앙성결교회, CGNTV 중계

2022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한결같은 주의 생명'과 생명주일예배를 드린다.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공동주최한다. 3월 28일(월)부터 4월 2일(토)까지 오전 6시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 '한결같은 주의 생명'이 이어지고, 4월 3일(주일) 오후 2시 생명주일예배를 중앙성결교회(종로구 충신길22 소재) 본당에서 드린다.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CGNTV와 중앙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생명주일예배는 CGNTV에서 4월 3일 오후 7시에 녹화방송한다.

오전 6시 새벽예배를 드리는 온누리교회 캠퍼스(서빙고, 부천, 수원, 강동)에서는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함께한다. 캠퍼스 자체적으로 찬양을 하고, 영상으로 설교자 메시지를 듣는다. 나머지 캠퍼스는 기존대로 새벽예배를 진행한다.

생명존중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홍순철 교수(고려대 산부인과), 이기복 목사(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함수연 회장(사단법인 프로라이프), 박상은 원장(샘병원 미션), 최형근 목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메시지를 전한다.

2022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4월 11일~15일 오전 6시 모든 캠퍼스 본당

2022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4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 목사가 설교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실황을 생중계한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서는 요일별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나라의 지도자, 수요일 코로나19 종식과

회복, 목요일 교회, 금요일 세계 선교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한다.

고난주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일 한 끼 이상 금식하고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한다. 불필요한 미디어(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 사용을 자제하는 미디어 금식도 병행한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올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4월 10일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주최하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4월 10일(주일)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진행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낙태 반대 및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호소하는 기도운동이다. 기도 봉사자들이 '우린 모두 태아였습니다', '생명은 가장 첫 번째 인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침묵기도를 한다. 생

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운동(40 days for life)'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낙태 종식과 반대를 하는 국제 낙태 반대 기도 단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형법상 낙태죄를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태아 생명 보호 입법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51개 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헌혈로 생명을 나눠주세요!"

생명나눔의 기적 4월 17일까지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끝을 향해가고 있다. 오는 부활절(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관련기사 5면>. 문의: 02-570-7523

이웃과 함께 우는 온누리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와주세요!

“음식, 생필품, 의약품,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 섬기는 김태한 선교사의 편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 피란민이 1천만 명이나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피란민이 된 셈이다. 그중 355만여 명이 국외로 피신했는데 그중에서 90%가 여성과 어린이이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피란민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온누리교회도 그 아름다운 섬김에 동참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몰도바와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정성껏 섬기고 있다.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을 섬기고 있는 김태한 선교사(우크라이나)가 피란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편지에 적어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루마니아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과 피란민 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란민들.



우크라이나를 떠나 독일과 불가리아를 거쳐 루마니아 북동부 수체아바에 도착한 지 2주가 지났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지나 차를 타고 수체아바 피란민센터에 도착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불안감이 생각보다 심하다. 집을 떠나 기까지 포탄과 총격을 피해 지하실이나 방공호에서 두려운 날을 보냈기 때문이다.

국경까지의 여정도 공포의 시간이다. 러시아 군이 주둔한 지역을 피해 우회하고 숲길을 통과하거나 때로는 주변에 떨어지는 포탄을 보면서 국경을 향해 온다. 기차로 온 사람들은 피란민으로 가득 찬 공간에 갇혀 온다. 국경에도 달하면 2km를 걸어야 루마니아에 들어올 수 있다. 봄이 멀지 않았지만, 거리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운 영하의 날씨이다.

피란민들은 국경을 넘어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마음은 편치 않다. 루마니아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어(러시아어)와 루마니아어는 전혀 다른 언어이다. 과거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국어로 영어보다 독일어를 선호했다. 그래서 성인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루마니아 자원봉사자도 영어 소통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한다. 우크라이나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들의 소통을 돕고 있다. 피란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도 나누고 있다. 한 피란민이 주일 아침 설교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갑작한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넉넉한 것이 하나도 없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참으로 선하고 친절하다. 자원봉사자들이 피란민을 사랑으로 대하고 안내하는 모습이 천사와 같다. 피란민들은 숙소를 배정받고 식당과 욕실(화장실), 모임 공간 등 시설을 안내받은 다음 식사를 한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피란민센터에 도착하면 언제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개방하고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둔다. 정갈하고 맛있다. 식단도 우크라이나의 전통 수프인 보르쉬, 쌀, 야채, 고기 등으로 속을 채운 양배추 찜인 갈롭찌 등 우크라이나식 요리를 준비하는 배려가 눈에 띈다. 피란민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온 가족, 친척들과 잠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나는 수체아바 피란민센터에서 지내면서 피란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있다. 피란민센터 임시거주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꽤 많다. 이곳은 루마니아 국경에서 가장 크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숙식과 필수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꼭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이 있다. 손톱깎이, 립밤, 세정제, 물티슈, 밴드, 갈아입을 속옷과 티셔츠 등이다. 근처 매장에 가서 샘플로 패키지를 만들어봤더니 한 팩당 약 16달러(약 2만 원) 정도

된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500세트를 지원받았다. 이 물품으로 피란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필요한 물품들도 있다.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이 위험한 전장에서 목숨의 위협과 더불어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최소 700만 명의 피란민들이 보급 없이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군이 도시들을 봉쇄하고, 필수품 유통을 막는 상황에서 거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다. 밀가루, 기름, 설탕, 사탕, 누들, 통조림, 즉석 식품, 쌀, 시리얼, 파우더 우유, 기저귀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의약품도 부족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사상자가 늘어 많은 의약품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 병원과 의료진들로부터 Antibiotics(항생제), Hemostatics(지혈제, that help the bleeding to stop), Analgesics(진통제, that calm and stop the pain), Sedatives(진정제), Syringes and perfusion instruments(주사기 및 관류기구), Antiseptics(소독, 살균), Elastic bandages(탄성붕대), Tourniquet(지혈대)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다행히 여분을 구할 수 있어서 지난 주말 주문해서 병원에 전달했다.

이 외에도 군복 형제들에게 지급할 겨울 양말 의류와 보급 장구를 요청받았다.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에 남아 현지인을 돕는 L 선교사

도 비상식량, 침낭과 손전등, 라디오, 캠핑용 취사도구 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후원자의 손길이 있어서 물품을 구매하고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영적인 양식도 준비한다

피란민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인 안정이다. 그래서 피란민들을 위한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선의출판사’를 설립해서 기독교 문서를 보급했었다. 감사하게도 이 일에 협력하는 헝가리와 루마니아 형제들이 있다. 루마니아로 피난을 나오는 통에 우리 팀이 못한 일을 헝가리의 난도르(Nandor) 형제가 준비하고 있었다. 난도르 형제가 기존에 출판한 묵상집 본문 중에 피란민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별해서 우크라이나어로 번역 및 편집까지 끝냈다. ‘드림팀’ (Dream Team)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다. 난도르 형제가 우선 2만 권을 부다페스트에서 인쇄해서 1만 권은 헝가리로 넘어온 피란민들에게 주고, 나머지 1만 권은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도시 우주호르도로 들여보낼 예정이다.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1만 권을 인쇄해서 5천 권은 국경을 넘는 피란민에게, 나머지 5천 권은 남부 국경도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보낼 예정이다. 성경(쪽 북음: 요한복음과 시편), 사영리(어린이용, 우크라이나 김대오 선교사가 인쇄본 전달해 줌)도 인쇄해서 보급할 예정이다.

이 사역이 정말 중요하다. 피란민들은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고 분노와 슬픔, 공포와 이별을 경험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는 불안에 떨면서 잠을 못 자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이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면 위로를 얻는다.

유럽 각국으로 흩어지는 그들에게 인쇄물은 당분간 유일한 자국어 책이 될 것이다. 낯선 언어 속에서 살아갈 이들에게 자국어 성경과 묵상집, 전도지는 위안이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거라 믿는다.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셨다. 루마니아에서 30년 이상 사역한 정OO 선교사님을 통해서 루마니아 수체아바에서 출판을 해온 현지 형제를 만났다. 새로운 한 줄의 역사가 기록되는 지점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고백한다.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 김태한 선교사(우크라이나)

문의: 02-2271-2246

후원계좌: 하나은행 537-910011-52905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야고보서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신약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잠언을 읽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혜를 강조하는 것은 이 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데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이 지혜를 만나야 온전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지혜 없는 믿음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많이 봅니다. 지혜 없는 믿음은 자기중심적인 믿음, 광신적인 믿음, 해로운 믿음으로 변화될 위험이 매우 큼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약 1:5).

이 말씀은 시험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믿음대로 행하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약 1:17).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의 핵심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혜와 선물을 의지해야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식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능력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 시대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 때문입니다.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떠나 가난한 삶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툼, 분열, 싸움입니다. 핍박, 가난, 다툼이라는 시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핍박이 가난을 만들어 냈고, 가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서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폭력 중심의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A.D. 66~70년경 폭동이 자주 일어났고 유대는 그 폭동으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했습니다. 당시 야고보는 폭력적인 혁명이 아니라 정반대로 고난을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면한 것이 열심당원 같은 세속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핍박과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권면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속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13절).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의 의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주어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지극히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13절 전반부를 이렇게 바꿔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이라. 너희의 의견, 선택, 행위가 지혜에 속한 것이라면 선한 행실과 온유함이 나타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행위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위로 나의 믿음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참된 증거가 행위인 것처럼, 지혜의 참된 증거 또한 선한 행실과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참된 지혜와 정반대되는 세속적 지혜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이 세상적인, 마귀적인 지혜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 ‘시기’와 ‘야심’ 하나님 지혜 ‘선한 행실’과 ‘온유함’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14~16절).

세속적인 지혜의 징후 그 중심에 시기과 야심이 있습니다. 시기과 야심도 겉으로는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열심당원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주창했던 것처럼 그 열심 이면에 숨어있는 시기과 야심을 분별하지 못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다툼이 심화됩니다. 결국 마귀가 기뻐하는 온갖 악한 행위와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기심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시기심은 사단에게서 나온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중심입니다. 인류 최초 살인이 가인의 시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할 가인이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몰락 원인도 시기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울의 시기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왕으로서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소모하는 인생으로 몰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를 압박하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불법으로 재판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동기도 시기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해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다”(마 27:18).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도자들의 동기 또한 시기였습니다. 시기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이었고, 그 분열의 원인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고전 3:3~4).

고린도교회는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 뒤에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열심 뒤에 숨겨진 시기심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열심에 속아 모두가 마귀에게서 오는 악한 지혜인 시기에 무너집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 권면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도 고린도교회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약 4:1~2).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 시대 교회의 또 다른 시험이 다툼과 분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극한 핍박과 가난 속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틈을 마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심과 해결책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악이 나타납니다. ‘아마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악가 모차르트를 다루지만 실제 중요한 주인공은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안토니오 살리에리입니다. 살리에리도 훌륭하고 성실한 궁정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모차르트의 천재적 재능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차르트를 무너뜨릴까?’ 몰두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살리에리를 위로하고 도우려고 찾아갔던 신부가 그에게 했던 말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하다”입니다. 이 말은 살리에리가 품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살리에리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철저히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고, 노력도 안 하는 모차르트에게 하나님이 자신은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살리에리의 마음에 깔려있었습니다. 그 토양에 시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심을 어떻게 합리화합니까?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합리화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시기심은 평등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사상에서 비롯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잘못은 평등에 대한 왜곡된 사상으로 사람들의 시기심을 불타오르게 하고, 자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지보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평등의 사상을 왜곡하면 사람들의 지배적인 동기가 시기심이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의 중요한 징후의 중심이 시기과 야심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징후는 선한 행실과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하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의 징후가 시기심과 야심이라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징후는 선한 행실과 온유함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중심에는 시기심이 아니라 온유함이 있습니다.

〈14면에 계속〉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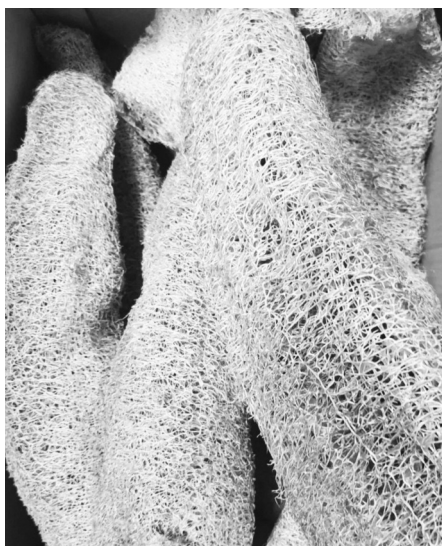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장옥이 권사, 송명화 자매의 달라진 일상과 의미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여 열기가 뜨겁다. 지난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6일과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이 캠페인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날마다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있다. 3월 넷째 주에는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고 부르시고”(창 1:10) 말씀을 묵상하고, 건강한 땅을 회복하는 작은 실천을 했다. 장옥이 권사(서산온누리교회), 송명화 자매(강동 프라미스대학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에 동참하며 장옥이 권사(서산온누리교회, 좌)는 천연수세미를, 송명화 자매(강동 프라미스대학부, 우)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습관이 생겼다.



창조질서를 깨닫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실천이다. 꾸준한 실천이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 제안하는 21가지 실천사항이 모두 습관이 되면 가장 좋지만,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이 끝나도 일상에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습관 한두 개만 생겨도 성공적이다.

불편하지만 행복한 천연수세미 전도사 장옥이 권사

장옥이 권사(서산온누리교회)는 설거지할 때마다 영적 전쟁 하는 심정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고 밭에 심은 천연수세미로 설거지 하고 있다.

“원래는 기후 변화나 환경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후 변화가 심각하다는 방송을 보고 기후변화전문가 과정을 공부했는데 아는만큼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내 일상에서부터 작은 실천을 하자는 마음으로 밭에 천연수세미를 심었고 올해 초부터 천연수세미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천연수세미가 세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천연수세미를 쓰다가도 플라스틱 수세미를 꺼내고 싶을 때가 정말 많은데 꼭 참고 있습니다.”

천연수세미는 설거지거리를 충분히 불려놓지 않으면 수고를 더해야 한다. 하지만 그 단점

을 보완할 막강한 장점이 있다. 바로 썩는 시간이다. 플라스틱 수세미는 썩는 데 500년이 걸리는데 천연수세미는 며칠이면 썩어 없어진다. 이것이 장옥이 권사가 불편해도 천연수세미를 고집하는 이유다.

“천연비누와 면 보자기도 쓰고 있습니다. 면 보자기도 쓰면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물티슈는 그냥 뽑아서 닦고 버리면 되는데 면 보자기는 사용하고 나면 삶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구 온도가 0.3°C만 오르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오는 데 조금 불편한 게 대수겠습니까?”

장옥이 권사는 불편한 행복을 주위에 나누고 있다. 가족부터 순식구들에게 천연수세미 사용을 권하고 있다.

“아들네에 천연수세미를 주고 써보니 어떠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진짜 불편하다’고 합니다(웃음). 저도 불편한데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천연수세미를 쓴다고 설명합니다. 서산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도 천연수세미 사용 후기를 나눴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기쁘게 천연수세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행복한 천연수세미가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텀블러’와 ‘걷기’ 습관 만든 송명화 자매

송명화 자매(강동 프라미스대학부)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환경 문제에도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는 습관을 만들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기 전에는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쓰레기를 막 버리면 그러지 말라고 나무라는 정도였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복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등의 뉴스를 접하면 죄책감을 느끼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묵상과 실천 방법을 제시해주

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덕분에 송명화 자매의 일상이 달라졌다.

“평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곤 하는데 요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텀블러 쓰기, 걷기 등 일상의 작은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은 습관이 생기거든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줄 소감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합니다.

/ 이기훈 목사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 참여하지 않았던 습관적으로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마셨을텐데 이번에는 개인용기를 챙겼습니다. 한 주간에 또 하루 가운데 무심코 사용되는 일회용품 줄이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동참합니다.

/ 이호진 성도

이번 주 주제 ‘땅’을 생각하며 이면지 사용과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했어요. 그리고 더 생각해 봤어요. 온누리교회는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대신 지역사회를 위한 공원을 조성했대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공원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짜지 않게 저염식으로 반찬을 만들고 먹을 만큼 적당히 덜어서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깨끗이 식사하는 습관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이 땅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 임근삼 성도

작게 올라오는 꽃망울들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감사합니다. 꽃기린, 히아신스, 종이꽃, 칼랑코에 등 꽃들이 예쁘게 피어나고 제라늄의 꽃망울이 기대됩니다. 튤립은 아직 잎사귀들만 있어 꽃은 몇 주 뒤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많은 꽃들로 사람들을 기쁘게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 이승연 성도

◎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작은 습관

제철 지역 농산물 소비하기

누구나 농산물을 구매하는 기준은 가격과 맛이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맛도 좋으면서 창조질서까지 회복할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기준이 있다. 바로 제철 지역 농산물 애용하는 것이다. 농업기술과 운송망이 발달하면서 농산물 대부분을 사시사철 맛볼 수 있는 시대다. 임산부가 한겨울에 딸기를 먹고 싶어 해서 난감했다는 이야기는 옛말이다. 이제는 사시사철 딸기를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제철이 아닌 농산물을 생산하고 타지에서 운송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 온도 유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탄산가스 발생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노지재배와 비교해서 비료와 농약도 더 사용한다. 그만큼 더 많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운송과 포장에 드는 비용은 말할 것도 없다. 햇빛과 바람을 맞으며 자란 제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습관이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소비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만큼 좋은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백성근 형제의 전국 팔도 헌혈 여행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혈한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다(농축적혈구 35일, 혈소판 5일). 따라서 적정 혈액보유량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3월 25일 기준 혈액보유일수가 3.1일분(O형 2.6일분, A형 3일분, B형 3.7일분, AB형 2.8일분)에 불과하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면서 이웃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오는 4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지금까지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16개 교회와 단체에서 성도 3,159명이 헌혈했다(3월 25일 기준).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헌혈하러 전국 팔도를 여행 중인 백성근 형제(두란노서점 직원).

요즘 ‘전국 00투어’라는 말이 유행이다. 전국 맛집 투어, 전국 카페 투어, 전국 콘서트 투어 등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 전국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보다 색다르고 특별한 팔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주인공은 헌혈하러 전국을 여행하고 있는 백성근 형제(두란노서점 직원)다. 벌써 서울, 경기도, 강원도에서 헌혈을 마쳤고, 며칠 전에는 충청도에서 206번째 헌혈을 했다.

“전국 헌혈 여행을 시작한 것은 헌혈 100회를 막 넘겼을 때부터입니다. 생각해보았더니 늘 같은 곳에서만 헌혈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흘러야 하듯이 나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헌혈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전국 헌혈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각 지역 헌혈의 집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 헌혈의 집은 모두 방문했고, 이제

충청도를 정복할 차례입니다(웃음).”

전국을 다니다 보면 시간과 경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백성근 형제는 사랑을 나누는 일이 마냥 즐겁다. 경치 구경과 맛있는 음식,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덤이다.

“다른 지역까지 가서 헌혈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잔소리 하시기도 하고요(웃음). 사실 제가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서울 토박이라 다른 지역에 가 본 적이 많이 없는데 헌혈 여행을 다니면서 경치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이동 시간이 긴 경우에는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야외 데이트도 즐기고요. 무엇보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랑과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즐겁고 뿌듯합니다. 헌혈이 제 취미이자 기쁨이 되었습니다.”

200번이 넘는 헌혈을 했는데도 백성근 형제에게 생명나눔의 기적은 또 다른 느낌이

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더 깊이 묵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두란노서점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명나눔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헌혈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헌혈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값진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피(血)로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가 정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귀한 캠페인을 알게 되고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캠페인을 혼자만 알고 끝낼 수는 없었다. 백성근 형제는 헌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교회의 선행을 알리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지역 헌혈의 집에 갈 때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대해 꼭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헌혈의 집 관계자들이

‘교회가 사회에 꼭 필요한 귀한 일을 해주시고 감사다’며 기뻐하십니다. 교회 자랑도 하고 예수님 자랑도 빼먹지 않습니다. 헌혈도 하고, 교회 선행도 알리고, 예수님 자랑도 하고 이거야말로 일석삼조 아닐까요?”

백성근 형제가 전국 헌혈 여행을 할 때마다 묵상하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온누리 교회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다고 했다.

“제가 헌혈하기 전에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헌혈만큼 사랑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 이은옥 성도

· 나의 작은 생명도 나누게(29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함정철 성도

· 헌혈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안지영 성도

· 보혈은 아니지만 제 피가 도움이 된다니 기분이 좋네요.
/ 한형탁 성도

· 피로회복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심문희 성도

· 작년 피로회복 캠페인 이후 계속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미경 성도

· 생각보다 힘들거나 어렵지 않네요. 그냥 작은 용기만 내서서 가시면 됩니다. ‘파이팅’
/ 박선규 성도

· 헌혈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값없이 주신 피를 나누며 살겠습니다.
/ 최수련 성도

· 기다렸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했습니다. 적은 피나마 살리는 일에 잘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 유승주 성도

· 굉장히 오랜만에 헌혈을 했는데 필요하신

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보람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헌혈을 주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좋은 프로그램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영은 성도

· 혈액의 일부를 나눔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엄영진 성도

· 늘 바늘은 무섭습니다. 올해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해 봅니다.
/ 김준태 성도

· 생명나눔은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 정원만 성도

·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헌혈 차가 와 더 손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계속 해서 살아가겠습니다.

/ 황호준 성도

·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김태현 성도

· 드디어 생명나눔을 함께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윤소영 성도

· 사랑의 실천에 동참하게 돼서 기쁩니다.
/ 김경희 성도

· 작년에 이어 또 참여합니다. 주기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네요.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 최유진 성도

·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눔 사역에 쓰임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 문명일 성도

날마다 영성이 자라는 온누리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와 사랑에 빠지다!

이윤석 순장과 최창혁 형제가 행복한 진짜 이유

온누리가 말씀과 사랑에 빠졌다.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덕분이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성경읽기표를 따라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1독(讀)하는 과정이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가 시작된 지 3개월여 지났다. 여기저기서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가하면서 받은 은혜와 간증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A공동체 안평C1순 이윤석 순장은 매일 아침 순원들과 함께 새벽예배 드리고,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최창혁 형제(여호수아청년부)는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덕분에 날마다 영성 성장과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이 요즘 진짜 행복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윤석 순장이 섬기고 있는 경기A공동체 안평C1순 단체채팅방에는 ‘하트(♡)’가 가득하다. 순원들과 함께 새벽예배 드리고 받은 은혜,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나눈 묵상 글, 각자 중보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간증들이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이다. 경기A공동체 안평C1순은 함께 새벽예배 드리고,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저희 순은 함께 새벽예배 드리고,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다들 열심히 따라주고 있습니다. 순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묵상 글과 간증을 나눠주는 순원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도전을 받고, 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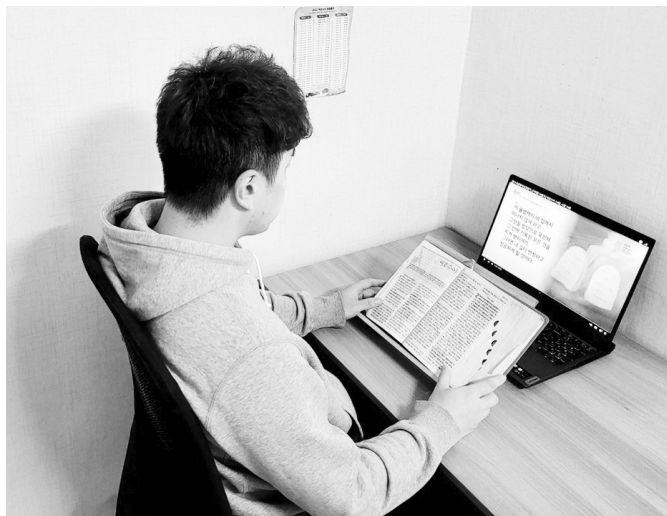
이윤석 순장이 순원들에게 함께 새벽예배 드리고,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중보기도 하자고 제안할 때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벽예배와 큐티에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더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했습니다.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순이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서로의 한 줄 묵상 나눔 글에 하트를 달아 격려와 축하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깐 습관이 되어서 힘들지 않습니다.”

이윤석 순장이 솔선수범했다. 순원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윤석 순장(경기A공동체 안평C1순, 좌)과 최창혁 형제(여호수아청년부, 우)가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다.



“제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순원들이 좋아하고, 잘 따라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순장님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순장으로 섬기면서 받은 은혜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은혜를 순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좋은 기회가 매일 아침 찾아온다고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납니다.”

순원들과 함께 새벽예배 드리고,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중보기도 했더니 순이 하나 되는 것은 덤이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말씀을 먹고 마시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한 줄 묵상 글을 올리기 위해 더 열심히 새벽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더 열심히 중보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순이 함께하는 중보기도 덕분에인지 기도 응답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순이 하나 되었습니다.”

새벽예배,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중보기도까지 이어지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순원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큰 보탬이 되었다. 다른 순으로 옮겨간 순원들도 새로운 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다.

“다른 순으로 옮겨간 순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순에서 부부가 같이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묵상하고 얻은 깨달음과 위안을 순원들과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그 순에서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해보니까 정말 좋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석 순장은 올해 연말이 기대된다. 1년 동안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면서 나눈 은혜의 간증들을 모아 파티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연말에 순원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순원들과 함께 새벽예배 드리고, 온누리 공

동체 성경읽기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경험한 기도 응답과 은혜를 모두 모아 순원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영성 성장과 선한 영향력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에 담백 빠진 청년도 있다. 그 주인공은 최창혁 형제(여호수아청년부)다. 최창혁 형제는 순과 리더십 단체채팅방에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묵상한 나눔 글을 매일같이 올리고 있다. 최창혁 형제가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작심삼일(作心三日)과 비슷한 원리다.

“1년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정을 합니다. 작정기도 하듯이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도 ‘7일 작정’, ‘30일 작정읽기’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더라고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창혁 형제가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면서 얻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성 성장’이다.

“날마다 말씀 읽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예배에서 받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묵상의 지혜가 더욱 깊어지며, 기도의 지경도 더욱 넓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날마다 영성이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한 영향력’이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하고, 묵상 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됐다.

“택배 일을 어려워하는 동료가 많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동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 분 한 분께 업무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이 굳이 안 알

려줘도 되는데 왜 알려주냐고 하면서 저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좋게 보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안에 말씀이 가득하니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창혁 형제는 순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처음에는 순원들이 묵상 글 나누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매일 묵상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순원들이 ‘나도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고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순원은 묵상 글을 아침에 올리고, 어떤 순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올립니다. 그 덕분에 온종일 말씀의 은혜에 빠져있었습니다. 제가 순원들의 마음에 성경읽기 불씨를 지피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최창혁 형제가 순원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면 느끼지 못해도 몸과 마음에 납니다. 이 좋은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에 순원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에는 이렇게 참여하면 된다. 매일 오전 교회에서 각 공동체 총무들에게 성경읽기 링크(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기독교 OTT ‘풍당’, 드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읽기’)를 보내준다. 총무들은 공동체 순장들에게 링크를 전달하고, 순장은 순 단체채팅방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성경읽기를 독려하면 된다. 우리말성경 버전(AI기술로 하용조 목사 음성 재현)과 개역개정 버전(드라마 바이블)이 제공된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나서 나눔을 하면 더 좋다. 그날 분량의 말씀을 읽고 순 단체채팅방에 감동한 구절이나 짧은 은혜 나눔 글 혹은 “아멘”, “읽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올리면 된다.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된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하면 된다.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 현상과 대처법

욕구를 하나님의 인정, 말씀, 관계 안에서 채우기



배시는 박사
(온누리상담센터
슈퍼바이저)

스마트폰과 인터넷 망이 활성화되면서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는 직업이 생겨났다.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팔로워(구독자)를 많이 거느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인플루언서

의 견해와 행동이 권력을 갖고, 가상의 세계를 넘어 현실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이다.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행위가 이미 인플루언서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정치적인다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인플루언서의 일종인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로 인한 갈등과 분열, 심지어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렉카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내용이 생길 때마다 빠르게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투버를 말한다. 교통사고 현장에 빠르게 달려가는 견인차를 비유해서 만들어낸 신조어다. 이들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자료 영상을 올리기보다 이미 나와 있는 영상이나 자료, 보도내용을 자신의 의도대로 편집해서 원제작자의 의도와 관련 없는 내용, 비방과 혐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수를 위한 제작물을 만든다.

사이버 렉카 현상과 문제점

최근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이버 렉카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했다. 방송에서는 사이버 렉카로 활동하는 혹은 활동했던 사람, 사이버 렉카를 따르는 사람, 사이버 렉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사이버 렉카로 활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게시물 조회수가 금전적 수입과 연결되므로 보다 자극적이고, 혐오를 유발하고, 분노를 유발하는 내용과 제목을 만든다고 했다. 실제로 자극적이고 혐오스럽고 분노를 유발하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따라서 영상을 만들 때 이슈가 되는 제작물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난과 성희롱을 하면서 자신의 팔로워를 통해 자신과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선동하고, 팔로워들이 해당 제작물에 악성 댓글을 달게 한다. 정작 그들(사이버 렉카)은 그 대상과 주제에 관심이 없다. 이들의 행동 이면에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다. 사이버 렉카의 수입은 영상 하나에 수천만 원, 월수입은 그 이상을 넘는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둠의 욕망을 끌어내 주목받고, 이로 인해 인정받는 쾌감을 느낀다.



“
사이버 렉카 현상과 같이 외부의 제재가 없으면
폭주하는 모습은 인간의 현존임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공감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연약함을 애도하기를 바란다.”

사이버 렉카를 따르는 사람은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하는 댓글을 쓰거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다. 그들은 ‘군중 심리’를 보여준다.

사이버 렉카로 피해를 본 사람은 정신적 병리(우울, 불안, 분노)를 경험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선택한다. 사이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이 제재 없이 반복되고 만연화되고 있다. 이 세 그룹에서 우리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 누군가를 (이유가 있든 없든) 비방하는 모습,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에서도 사이버 렉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집단 악에 대해 보여준다. 바벨탑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게 하려는 인간의 오만과 야심을 드러낸다. SNS는 연결되고 소통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소박한 욕망에서 비롯되었지만, 자칫하면 집단의 악이 그곳에서 힘을 모아 드러나는 사이버 바벨탑이 될 수 있다. 사이버 렉카처럼 돈과 권력을 좇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신, 우상을 따르는 행위로 연결되고, 그 끝은 허무하고 처참한 죽음으로 연결된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울 왕은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왕이다.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도 출중하고 좋아 보였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권력을 좇아 다윗을 비방하다 생을 마감한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부와 권력을 축적하다가 이방신을

섬기며 타락한다.

군중 심리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했던 군중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적을 보면서 모세를 따랐지만, 광야 생활에서 갈증과 배고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더디게 내려올 때 자신들을 인도할 황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다.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과 제자들도 병 고침과 권능의 기적들을 보며 예수를 왕 중의 왕으로 좇았지만, 한순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과 함께 예수를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성경 속 군중들은 영적 분별력 없이 힘이 있어 보이는 지도자를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외로움, 공격성, 자기상실

기독교 상담에서 사이버 렉카 현상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외로움’을 채우고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이다. 다른 하나는 집단으로 보이는 인간의 ‘공격성’이다. 마지막 하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자기 상실’이다.

외로움은 탄생과 함께 세상으로 떨어진 인간의 본질적 상태로 연약하고 누군가의 보호와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감정이다. 현대인은 외로움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한다. 주로 돈과 권력, 성공과 같은 허상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열심히 산다. 사이버 렉카를 비롯한 유투버들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심이 곧 돈이라는 보상으로 채우고, 사람들

의 동의를 통해 인정을 받아 높아진 느낌을 받는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욕망으로 채운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공허한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다. 또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과 의견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인간의 공격성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심리학자들은 ‘죄성’이라고 말한다. 심리학자들은 내면의 공격성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만, 공격성이 드러날 때는 내 것이 아닌 네 것인 듯 타인에게 투사시켜 드러낸다고 한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공격성이 어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드러난다. 집단으로 보이는 공격성은 공동체 안에서 ‘왕따(집단따돌림)’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왕따 가해자와 동조자, 방관자는 약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어둠을 투사한다. 가해자와 동조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격성을 피해자의 것으로 치환한다. “네가 무엇인가 결함이 있어서 왕따를 시키는 거야”라고 믿는다. 방관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에 침묵한다. 동조자와 방관자의 모습에서 ‘자기 상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의식으로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 지도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다수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한다. 자기가 없는 상태는 이리저리 휩쓸리는 허수아비와 같다. 목자를 잃은 양 떼와 같다.

사이버 렉카 현상 대처법이 무엇일까? 채우려 하고,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구를 건강한 방법으로 이뤄야 한다. 인간은 영, 혼, 육 모두를 지닌 존재이므로 욕구를 무시하며 살 수 없다. 채우려는 욕구를 적절하게 채워야 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높아지려는 욕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으로 채워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고 했다.

죄성으로 이미 가진 공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추어 내 것임을 알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기르기를 권고한다. 또 자기 자신을 모르는 상태에 놓이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self)는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정체성이다. 자기 존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식할 때, 내가 가는 길과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규칙과 율법,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다. 사이버 렉카 현상과 같이 외부의 제재가 없으면 폭주하는 모습은 인간의 현존임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공감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연약함을 애도하기를 바란다.

“라떼는 말이야”

청년이여,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내게 물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취업과 결혼이다. 유교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 세대들을 ‘꼰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말만 하려고 해서 그럴것지 싶다.

나의 자녀와 같은 청년들에게 어떤 도전과 격려의 말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내 경험과 이야기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내게는 청년 시절의 좋은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세대들의 고민처럼 집을 구하는 일에도, 직장을 구하는 일에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청년세대 고민의 무게와는 같지 않음을 인정한다.

나는 이 글에서 내 자녀세대와 같은 청년들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혼돈을 주는지를 알려주고 싶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을 가져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갈등은 신앙

과 세상을 양분해서 어느 쪽에 맞춰 사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인가에 있다. 그들은 시대보다 사람과 현실의 문제를 분별하고 싶어 한다. 안타깝게도 답은 진리에만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다. 주를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과 환난

자이기 때문이다.

신앙은 호기심이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길과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다.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길이 곧 제자도(弟子道)다. 일어나 머리를 드는 것은 슬프고 비참한 세상에서 모든 문의 주인이 되시는 왕의 왕, 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마음의 거친 것들이 사그라지고,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얼마나 큰 용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임재를 통한 경험뿐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셨다. 그 몸의 지체된 우리는 열심히 주를 배우고 훈련하며 섬겨야 한다. 나처럼 청년의 때에 방황했던 자들을 찾아 가르치고 훈련하며 섬겼던 경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복음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세상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나는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청년들이 이 땅에 부흥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영찬 장로
(SNS청년부 멘토)

“청년들이여,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모든 문의 열릴지어다!

우리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어다!”

을 겪지만, 하늘을 보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수박 겉핥기로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열심과 열정을 다해 사는 것,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길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제공받는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안에 있게 된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청년들이여,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모든 문의 열릴지어다! 우리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어다!”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거절을 넘어서 경험하는 더 깊은 하나 됨

부부 사이에서 익숙해질 것 같으면서 여전히 힘든 게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거절감’이다. 부부가 서로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결혼 생활에서 거절은 의외로 자주 일어나곤 한다. 결혼 생활 중에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상황은 다양하다. 의견에 대한 직접적인 거절, 간접적인 거절, 배우자가 거절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고통해서 느끼는 감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거절감을 느끼곤 한다. 거절은 익숙해지거나 무뎌지지 않은 특성이 있는 듯하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밀려오는 섭섭함이나 상대에 대한 미운 감정은 아무리 경험이 쌓이더라도 힘든 면이 있다. 부부관계는 다른 사회적 관계와 다른 기대가 있어서 거절이 익숙해지지 않는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기대와 희망이 있어서 부부관계에서 거절은 심적인 섭섭함과 어려움이 더욱 크다.

유난히 거절에 높은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거절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다. 나의 배우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가까운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속 기대가 있다.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적인 스트레스가 높고,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된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염려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회피하거나 소심

하게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외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내면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다. 타인에게 수용되어 본 경험이 부족해서 느끼는 내적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부부관계에서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취한다. 용기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배우자 혹은 가족이 거절했을 때 심적으로 매우 심한 거절감과 낙담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회복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지 않은 사람은 속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상대가 거절하더라도 상처를 크게 받지 않고, 상대와 직면해서 이야기하고 타협하는 일지형의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거절에 대해서 비교적 덜 민감한 성향이라면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절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도 사회생활에서는 수많은 거절 상황을 직면하기 때문에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사회적 관계와 다른 측면이 있다. 부부관계에서 끊임없이 거절을 경험하면 낙담과 상심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그 마음의 섭섭함은 부부관계의 갈등이나 부부관계의 소원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신의 배우자가 거절에 관해서 예민한 성

향이려면 거절을 매우 신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결혼 생활의 연차가 길고 익숙한 사이가 되었다더라도 거절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

부부에게 존중이 사라지면 갈등이 증폭된다. 함부로 대하는 무례함이 증가한다. 늘 존중하는 부부관계로 세워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무례한 거절이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혼 생활 중에 겪을 수 있는 거절의 경험은 신앙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실까?’,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내 모습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신앙적 측면에서의 거절감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거절하지 않고 늘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히 4:15~16).

또한 거절감을 극복하고 내적인 평정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배우자의 거절에 대해서 상황과 자신의 인격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거절은 자신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나 의견에 대한 반대, 거절인 경우가 훨씬 많다. 늘 내 편인 줄 알았던 배우자가 내 의견에 쉽게 반대하거나 대차게 거절

한다면 대화 내용과 감정을 분리해서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거절을 자신에 대한 거절로 여겨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크게 좌절하거나 배우자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도 상황과 사건을 감정과 분리해서 인식하고 가능하면 객관화할 수 있는 심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절 상황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기 비난, 자기 연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배우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같은 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신앙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막 6:1~4). 거절을 넘어서 경험하는 더 깊은 하나 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나눔: 최근 마음이 힘들었던 배우자의 거절은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거절했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느낌과 생각을 진지하게 서로 나눠 보십시오. 거절을 넘어서 하나 됨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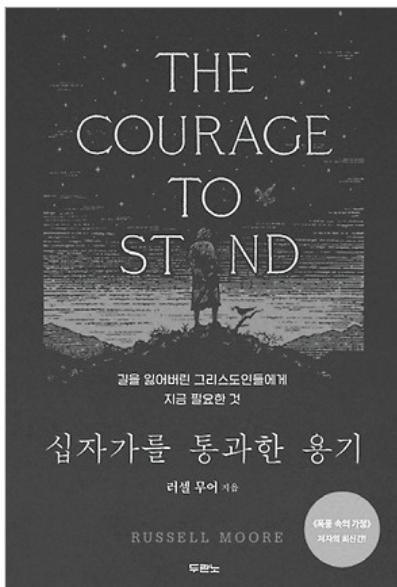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용기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
러셀 무어 저 | 두란노 | 16,000원

한국의 계절은 여러모로 성경의 절기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낸다. 부활절도 그렇다. 한국에서 부활절의 계절은 봄이다. 계절상으로는 꽃이 피는 봄의 생명력과 활기를 흥얼거리게 하고, 성경적으로는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노래해서 시기상 잘 맞는다. 그래서 계절과 시기가 맞물려서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치고,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사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통과해야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절상으로는 봄이지만 사순절 기간인 한국의 3월은 춥고 때로는 눈이 오고 감기가 유행해서 몸과 마음이 고되기 쉬운 시기이다. 하지만 영육 간에 고되고 힘든 시기를 통과해야 비로소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하는 책 〈십자가를 통과한 용기〉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엘리아가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여호와와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 이후 권선징악을 이루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줄 알았으나, 이세벨로 인해 생명을 잃을 것만 같은 두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 그리스도인이자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든 시기를 엘리아도 맞이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살고자 나뭇의 선택을 하고 광야로 갔으나, 오히려 하룻길을 걷고 보니 더욱 분명하게 살 수 없다는 절망적인 확신을 하게 됐다. 여기서 그대로 멈추었다면 정말로 그는 광야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엘리아에게는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마주한 모든 상황을 통과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용기였다.”

모든 것이 정말 끝난 것만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쥐어짜

여호와와 말씀에 반응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벽으로 내몰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이었다. 물과 음식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는 무엇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돌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엘리아는 철저하게 피조물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기에 반응해 주셨다. 그제야 엘리아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우리도 그렇다. 개개인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고통과 아픔과 눈물로 지나온 터널이 있다. 그렇기에 내 인생에 또는 내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터널을 인생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언제 봄이었나는 듯이 혹독한 겨울과 같이 고되고 힘든 시기가 인생에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터널 앞에서 있는 우리의 손 잡아주시며 그 터널을 함께 걸어 주신다는 것을 말이다. 믿음의 용기로 고독하고 절망적인 인생의 터널과 사망의 어두운 골짜

기를 통과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는 발걸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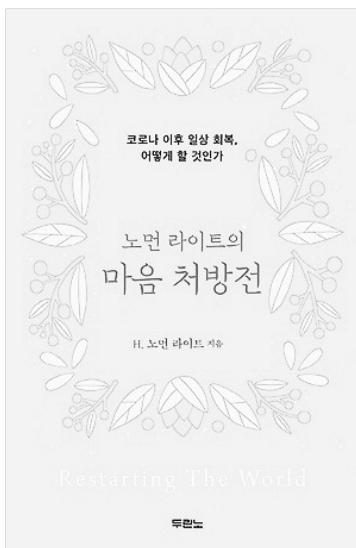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이라는 기능을 선물해 주셨다. 기억을 허락해주신 것은 축복이다. 기억과 성경이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과 부활의 소망과 함께 주어졌다.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며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용기로 두려움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인생의 봄을 맞이하는 사순절과 부활절 되기를 축복한다.



윤준석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



〈노먼 라이트의 마음 처방전〉
H. 노먼 라이트 저 | 두란노
| 10,000원

곧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상을 되찾으려 했던 마음에 다시금 두려움이 피어오른다. 갑자기 들이닥친 고난, 멈춰버린 일상, 엄습하는 공포, 쌓여가는 피로감 등으로 마음의 병이 깊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독교 치료사이자 상담전문가인 H. 노먼 라이트는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마음 치료법을 책 〈노먼 라이트의 마음 처방전〉에 세세하게 기록했다.

책 〈노먼 라이트의 마음 처방전〉에서는 슬픔과 트라우마를 다룬다. 팬데믹이 남긴 상처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직면하도록 돕는다. 슬픔과 고립, 불안, 분노, 좌절, 외로움 등 해결하지 못한 상처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치료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팬데믹을 지나 새롭게 시작되는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격려의 힘’, ‘은혜의 힘’, ‘소망의 힘’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예기치 못한 고난에 주저앉아 일어날 힘이 없는 성도,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 회복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전도가 무섭고 어렵다면 주목!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

과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들과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전도까지 연결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종상 선교사는 두려움과 오해로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도대상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하라고 권면한다. 이 외에도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전도 사례, 전도 시작 방법, 복음을 설명하고 양육하는 방법,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전도를 계속하는 비결 등을 알려준다.

전도는 왜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독교 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에서 최종상 선교사(암노스유럽선교회, 전 돌로스 선교선 단장)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 〈회복해야 할 사명, 전도〉는 총 7편이다. 전도의 믿음과 실재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다. 전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최종상 선교사는 전도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제자훈련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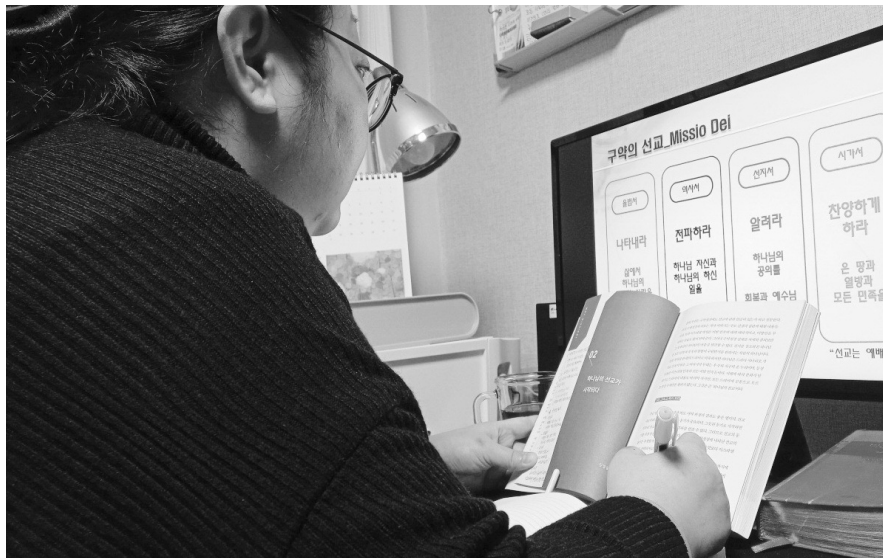
와이미션 수료 간증

와이미션 과정은 가장 나중에 들어야겠다고 미뤄왔던 과목이다. 선교는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있는 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동체에 와이미션 과정이 개설되었다. 신원석 목사님께서 심방하실 때 잠깐 들려주셨던 선교지에서의 간증을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에 수강신청했다.

와이미션 교재 1과를 읽는데 '복이 머무는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이다'라는 소제목과 '가라, 복이 되어라!'라는 구절이 내 마음에 박혔다.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그리스도인인 나는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복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렸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가라, 복이 되어라!"

여태껏 내가 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은 내가 복이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바라



문수진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는 와이미션 강의를 들으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봤더니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비자발적으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는 열정적이었다.

조별 나눔을 하면서 선교에 관하여 조원들과 나누며 나를 돌아보니 복음을 전하기에는 나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지내고 있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인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독후감 과제를 수행하려고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읽었다.

중국 선교의 선구자인 테일러 선교사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눈물범벅이 되었다. 어린 나

이에 선교사의 소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믿음의 비결에 대한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웠다. 서두르고, 동요하고, 고민에 빠져 허둥대는 나에게 테일러 선교사님의 생애는 평온의 원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굉장한 집을 지고 있으면서도 완전한 평안을 잃지 않았던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다.

와이미션 과정에 참가하면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더 내고,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복의 전달자로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한류열풍을 통해서 각 나라 외국인들이 우리 땅으로 오게 하셨다. 국내에 들어온 이웃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 문수진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코로나19, '전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전도폭발훈련 2단계 과정을 시작하면서 발목을 다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스하고 목발을 사용하게 되었다. "아버지, 제가 다리가 아프지만, 전도폭발훈련을 잘 받고 꼭 노방전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렸다.

관계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도 대상자는 가출한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던 어느 어머니였다. 사춘기에 접어드는 딸이 방황해서 크게 낙심해 있었다. 우리 조는 관계전도를 하기 전부터 그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두 달 동안의 기도 끝에 그분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복음 전문을 전했다. 그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셨다. 그분을 위해 날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친정아버지가 아프고, 팔도 방황하는 상황으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길 기대한다.

훈련이 계속되고 노방전도 날짜가 정해졌는데도 내 다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하게 노방전도가 있는 주에 급속도로 상태가 좋아졌다.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노방전도를 나갈 수 있었다.



백정희 성도(전도폭발훈련 2단계)가 조원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있다.

두 번째 노방전도를 나갈 때 일이다. 서울역에서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 할아버지는 매일 서울역에 나와 앉아있다가 들어간다고 하셨다.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어르신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음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다. 감사하게도 그 할아버지가 복음 전문을 듣고 결신기도까지 마쳤다.

"기도하는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같았다"며 수줍게 웃으셨다. 할아버지께 영생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

아픈 다리로 복음 전문을 외우고 전도하는 나를 보면서 남편이 의아해했다. 전도폭발 1단계 훈련을 받을 때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다. 2단계 훈련을 받을 때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

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사람에게 다가가는 긍휼함 때문인지 복음 전문을 정말 잘 들어줬다. 남편에게 두 번, 세 번 복음의 씨앗을 더 뿌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며칠 뒤 남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도에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던 남편의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나왔다.

이제는 남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용기 내어 남편 친구들에게 복음 듣기를 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는다. 나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도 전도폭발훈련을 하기로 결단했다.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전도에 대한 기쁨과 자유함을 되찾았다. 전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내 일이 아닌 양 멀리했던 것을 회개한다.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될 때 하나님이 삶과 가정을 더 온전히 이끄실 거라 믿는다.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많은 분의 기도가 쌓여 연약한 내가 전도자로 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 백정희 성도(32기 전도폭발훈련 2단계 수료)

내가 전도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

3년 만에 ‘새가족 만남의 잔치’ 열린다!

3월 27일 오후 7시 서빙고 선교관 301호, 줌(Zoom)



지난 2019년 새가족 만남의 잔치.

3년 만에 서빙고온누리교회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이하 서빙고 만남의 잔치)가 열린다. 3월 27일(주일) 오후 7시 선교관 301호(현장 스튜디오)에서 줌(Zoom)으로 진행된다. 주제는 ‘커넥트(Connect)’다. 그리스도(Christ), 교회(Church), 공동체(Community)와 연결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새가족만남의잔치팀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만남의 잔치 대신 ‘새가족 환영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해왔다.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는 이재훈 담임목사 인사, 오미희 권사(배우) 목상의 산책, 심혜영 자매 바이올린 연주, 서빙고 교역자 특선, 공동체 만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상봉 팀장(새가족 만남의 잔치팀)은 “스튜디오와 줌(Zoom)을 연결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의 잔치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새가족 등록 교육과정(8주)을 마친 새가족이다. 문의: 02-3215-3267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기독교 성가치관으로 크리스천 양육자와 다음세대의 올바른 기독교 성가치관을 세우는 ‘기독교 성가치관학교 8기’가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지연 약사(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강의한다. 디지털 세대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교육하기 원하는 부모, 교사,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3월 29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65

헬로맘 참가자 모집

헬로맘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헬로맘은 성격 속 여성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아내로서의 정체성, 부부 연합의 비밀, 엄마로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는지 등을 배우는 과정이다. ‘속사랍을 단장한 여인, 사라’, ‘선택의 행로에 선, 리브가’, ‘비움에서 채움으로 인생이 변한, 나오미와 롯’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2716-2736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 킹’ 결선

5월 5일 CGNTV 첫 방송 예정

CGNTV가 제작하는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 킹’이 지난 3월 18일(금) 결선을 치렀다. 결선에는 참가자 1,062명 중에서 1,2차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6명(10대부터 60대까지 1명씩)이 진출했다. 1등은 상금 1천만 원과 출석교회 양육지원금 5백만 원, 2등은 상금 5백만 원과 출석교회 양육지원금 3백만 원, 3등은

상금 3백만 원과 출석교회 양육지원금 2백만 원이 수여된다. 성경암송퀴즈쇼 ‘바이블 킹’에는 MC 김영우(가수), 멘토 이성미(방송인), 이영표(강원 FC 대표이사), 한기재 목사(중앙성설교회), 백은실 사모(303비전성경암송학교) 등이 참여했다. 5월 5일 CGNTV에서 첫 방송 예정이다.

젊은부부학교 지원자 모집

4월 9일~4월 30일 매주 토 오후 1시

젊은부부학교 지원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10만 원. 4월 2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젊은부부학교는 하나님의 가정원리를 배우고, 부부가 연합하고 축복의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성경적 결혼관’, ‘피플퍼즐’, ‘자기애로의 여행’, ‘남녀차이와 부부대화’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2086-8210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4월 9일~6월 25일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1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한 명당 1만 원(비대면 강의로 진행되면 가정당 1만 원).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은 레크리에이션, 미술, 놀이 등 예술 매체와 예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더욱 친밀해지도록 돕고,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회복프로그램이다. 문의: 010-2647-5435

하나님 안에서 연애 잘하는 방법!

대청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애·결혼 코칭 세미나 ‘청춘클래스’ (이하 청춘클래스)가 막 오른다. 4월 23일(토)과 30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정곡빌딩 4층(W공동체 예배 처소)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8일(월)까지 네이버카페 ‘청춘클래스’ (cafe.naver.com/youthclass)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60명 모집한다. 회비는 5만 원.

청춘클래스는 하나님 안에서 연

애 잘하는 방법이 궁금한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다. 강사들의 강의를 듣고 나누며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열어준다. 4월 23일(토) 개그맨 오지현, 박상미 부부 ‘행복한 이성교제’, 김승수 목사 ‘크리스천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4월 30일(토) 손경민 목사 부부(가스펠 ‘은혜’ 작곡) ‘은혜의 만남’,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가 ‘좋은 배우자의 조건’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네이버카페 ‘청춘클래스’

온라인커뮤니티 ‘가정’ 주제 특강

3월 29일부터 3주 동안 김숙경 소장 강의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가정’을 주제로 특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2일(화)에는 한건수 교수(국민대 겸임교수, 감사연구소)가 ‘친밀함’을 주제로 특강했다. 한 교수는 “한마디 칭찬과 인정의 말이 상대방에게 힘과 응원이 될 수 있다”면서 “칭찬 세례를 퍼붓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

기를 축복한다”고 권면했다. 3월 29일, 4월 5일, 12일에는 김숙경 소장(김숙경사랑연구소)이 특강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체이다.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남북사랑학교 소액 후원자 찾습니다!

통일사역자 세우는 기독교 대안학교

남북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 남북사랑학교에서 간식비를 지원해 줄 소액 후원자를 찾고 있다. 예산이 빠듯해 아이들에게 간식을 줄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양섭 교장(남북사랑학교)은 “점심을 잘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프니 아이인데 학교 살림이 빠듯해서 교사들이 자비로 간식을 사고 있다”면서 정중하게 후원을 부탁했다.

후원: 우리은행 1005-181-337733, 문의: 010-6426-9308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3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와이무슬림에서는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무슬림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557-8924

세례명단

서빙고 권순남 651130 김상국 840611 김승해 900830 김영희 571130 조성희 730615 유아 김은수 190103 김준식 정경호 김은호 200911 김준식 정경호 반서준 191216 반승한 김빛나	임효리 841017 채선희 510108 최연수 890826 유아 권하준 190205 권만승 서아영 김주아 210408 김영재 유경리 나예안 200502 나민음 안성경 류사랑 210401 류영찬 이보미 배시연 200131 배중권 목지선 이로운 210724 이준범 박가은 조수호 210612 조윤석 김상애	조제니 210526 조영돈 김재희 대학청년 여호수아 김현수 880618 유아 박동주 210412 박경원 송유진 박동하 210412 박경원 송유진 박서하 210713 박승진 민희선 지승리 211011 지데이비드 박유진 지평안 190320 지데이비드 박유진	허브 김수연 940621 입교 남윤권 990602 J4U 신현지 910424 SNS 이상희 861203 한예지 931031 입교 국경아 850702 유아 지소울 200916 지은찬 한예지 박서진 210407 박만근 하은혜
---	---	---	--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황혜영 성도(강촌공동체)

12살, 슬슬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아들 영우. 이제는 엄마 잔소리에 그만하라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는, 나름 컸다는 티를 내는 아들이다. 이런 아들과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자니 양육자인 엄마는 정말 땀 값이 지혜로워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었기에 영우가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또 하나의 ‘숙제’ 처럼 여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 몇 가지를 약속했다. 첫째, 실컷 놀고 나서, 더 놀 것이 없어 심심해지는 주일 오후 5시에 시작하기. 둘째, 시작하기 전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포도 주스와 과자로 배 불러주기. 셋째, 양육 시간은 길지 않게 하되 핵심 내용을 분명히 공부하기.

이렇게 정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는 빨리 간식을 먹고 싶은 생각에 영우가 먼저 책을 펴고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양육자인 나도 처음에는 재미있게 가르쳐보고 싶은 마음에 학습지도 만들어보고, 아이디어도 내며 열정을 다했다. 그런데 점차, 나 자신이 큐티를 못하게 되거나, 피로해져서 양육자로서의 힘을 잃기도 했다. 그러나 영우

제자로서의 삶, 그 시작

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셨고, 그분의 은혜는 넘쳐났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영우가 “아,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하길 참 잘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그 작은 머릿속에서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실 기쁨을 내가 대신 느끼는 것만 같았다.

“아... 처음이 없으면... 시간이... 어떻게 되는거지?”라고 고민하며 시간을 초월하신 분에 대해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을 때나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 늦기 전에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엄마와 함께 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끝났지만, 제자로서의 영우의 삶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영우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몸에 익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간구해야겠다.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신성준, 이혜린 성도 부부

2018년 결혼식을 앞두고 부모님께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참가 권유를 받았다. 당시에는 7년 동안 장기연애를 한지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생각했고, 전역을 앞두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라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두란노결혼예비학교를 신청하지 않았다.

결혼 이후 입사하고 아내와 같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냈다. 가끔 서로의 가치관 차이로 갈등이 생기곤 했다. 직업적인 특수성도 있겠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 아내가 원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누려 하지 않았다. 부동산, 주식 투자에 몰두하거나 최근에는 회사 성과에 눈이 멀어 아내를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다.

우리 부부는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젊은부부학교 강의를 듣기로 했다. 결혼 전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세워가기로 했다.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하면서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이어주신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깨달았다. 서로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

인생의 훌륭한 나침반

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 과제를 하면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아내가 내게 이토록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책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과 소통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훌륭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것을 더욱 명확하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 젊은부부학교 강의를 들으며 배우고 익힌 것을 앞으로 부부 생활에서 충실하게 적용해야겠다.

젊은부부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우리 부부의 인생에서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참석했는데, 7조 조장님들과 젊은부부학교를 섬기는 많은 분의 노고로 즐겁고 값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젊은부부학교가 열리는 주말 즈음이면 매주 집 앞에 도착한 정성이 가득한 예쁜 선물들과 간식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젊은부부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의 노력을 보며 아내가 말한 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나님과 52기 젊은부부학교를 함께해주신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를 전한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이영선 성도(양재공동체)

내가 받은 세 가지 은혜

“새신자과정을 또 하라고요?”

모태신앙이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몇 년이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내가 새신자반에 또 들어가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선풍 내키지 않았다.

남편의 직업적인 상황으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생활했던 나는 새신자 과정만 거의 7~8년 등록했던 것 같다. 그래서 새신자반을 또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싫었고 웬지 화가 났다. 지난해에도 마음을 다잡고 새신자 과정을 등록하려고 했는데 급히 수술해야 해서 못했다. ‘알고 있는 내용 대답하는 것도 지겹다’는 마음도 들었다.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새신자 과정과 일대일제자양육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겼다.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행복하고 새신자 과정과 일대일제자양육을 신청했다.

드디어 양육자님이 연결되어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첫 주는 전화, 두 번째 주부터는 줌(Zoom)으로 했다. 얼굴도 모르는 양육자님과 성경공부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은혜를 받았다.

첫째, 양육자님의 일대일제자양육 방식이 내가 여러 교회에서 경험했던 방식과 달랐다. 동반자인 내 마음을 살피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다.

둘째,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 평생 성경을 대할 때마다 궁금하고 어려웠던 말씀들로 인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여쭙 봐야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어려웠던 말씀들이 일대일제자양육 시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양육자님과 함께 기뻐하며 성령님의 은혜에 감탄하고 감사했다.

셋째, 기도응답이다. 일대일제자양육 시간마다 나는 기도제목을 놓고 서로 중보하고, 다음 시간에 그 기도제목이 응답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일대일제자양육 시간에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실까?’ 하는 기쁜 마음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교회에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다.

■ 알콩달콩부부학교 수료 간증



/ 정은배 선교사(안산M센터)

오만 원의 행복

어느새 결혼 3년 차가 되었다. 하늘이 두 조각 나도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딱 맞는 배우자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럼에도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갈등과 문화 차이가 이따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했다. 결혼의 행복을 다시 찾자 알콩달콩부부학교에 참석했다.

알콩달콩부부학교가 진행되는 2박 3일은 정말 편안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서로에게 쉽이 되어주는 시간이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웃음 가득한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감사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서로 읽어주면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벌써 헤어져야 하다니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이제까지 남편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다. 남편

의 모든 순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사랑해줄 것을 다짐했다.

알콩달콩부부학교에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결혼 생활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듯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할 때의 감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부부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쳐준 알콩달콩부부학교에 감사를 드린다. 알콩달콩부부학교 스태프들의 세심한 섬김과 기도가 정말 좋았다. 새 생명을 낳게 해달라는 우리 부부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2박 3일 동안 분에 넘치도록 받은 사랑이 고맙다.

알콩달콩부부학교는 마지막까지 행복을 선물해줬다. 진행부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라며 오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다. 그 오만 원으로 데이트를 하며 또 큰 사랑과 은혜를 누렸다. 그 어느 때보다 값지게 사용한 돈인 것 같다. 남편의 말대로 정말 ‘오만 원의 행복’이었다. 알콩달콩부부학교에 사랑과 축복을 전한다.

장로칼럼

일어나거라! 나오너라!

박봉래 장로
(김포공동체)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세 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살리심’ 이고, 두 번째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며, 세 번째가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살리심’은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장 바티스티 비카르(Jean Baptiste Wicar(1762~1834))의 <나인성 과부 아들의 소생>을 추천하고 싶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제자, 군중들과 함께 나인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어떤 과부의 외아들 장례식을 목격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떠나보내야 하는 과부 어미의 애통함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예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몹시 가엾이 여겼다. 율법은 죽은 자의 관에 손대는 일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죽음은 죄의 결과에서 비롯된다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관에 손을 대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뛰어넘은 것이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은 오래전 실제 부활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예수께서 과연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붉은 옷을 입으신 예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손가락으로 과부의 아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신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죽었던 젊은이가 몸을 감쌌던 세마포를 걷

어내며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는 분이므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초자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렘브란트의 작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대표적이다. 예수로부터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받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병들어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 나사로의 무덤을 찾은 예수께서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고 주위에 말했다더니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나서서 이미 시체가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만류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께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손을 들어 말씀하신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소리로 외치자 죽은 나사로가 깨어났다. 오른손을 들고 있는 예수의 아래쪽으로 빛이 들어와 나사로의 여동생 얼굴을 밝게 비추고, 이윽고 죽음에서 눈을 뜬 나사로에게 빛이 향한다. 나사로 주위에는 그가 군인이었다는 설에 따라 칼과 활이 걸려있다. 그의 손발은 베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여있다. 예수께서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고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고후 1:10).



나인성 과부 아들의 소생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권사칼럼

코로나19 극복기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근 2년 가까이 인간을 발아래 굴복시키던 코로나19가 기세를 더해서 ‘오미크론’이라는 가공할만한 전염력으로 오금을 못 꺾게 사망에서 조여온다. 오랜만에 좋은 지인 두 분과 만나 그간 신세졌던 답례로 식사를 대접하고 돌아오는데 어찌 목이 칼칼하고 뜨끔거렸다. 약국에 갔더니 요즘 오미크론 증세가 인후통을 동반하니 자가키트로 검사해보라 권했다. 행여 확진이라도 나오면 그날부터 자가격리 환자가 되는 판이라 일단 마트에서 비상식량과 비상약부터 넉넉히 준비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다음 경건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쿡구멍을 여러 번 쑤신 다음 시약에 담귀 자가키트 동그란 구멍에 용액을 부었다. 시약이 검사지에 내려가는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숨을 꼭꼭 삼키고 기다렸다. 드디어 한 줄 곧이어 또 한 줄. 두 줄의 선명한 빨간색,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즉시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하고 돌아왔다. 다음 날 확진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오고 독거노인에 고혈압, 당뇨를 동반한 기저 질환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채택 의사와 간호사가 배정되었다. 이틀 정도 목이 조금 아프더니 열도 없고 기침도 없고 몸살 기운이나 통증 등 특별한 증후 없이 잘 지냈다. 약명 높은 이름에 떨었던 것에 비하면 싱거울 정도로 덤덤히 지나간 듯하다.

일주일 집을 폭 쉬고 자가격리 해제되었다. 오랜만에 시골집이 금금해서 집을 나섰다. 물러갈 때도 뒤편 작열하는 오미크론이 위세를 더했다. 목이 아프고 입이 말라 침 삼키기가 어렵고 숨이 차면서 가슴이 아팠

다. 병원도 먼 외진 곳에서 혼자 있다가 무슨 병고라도 생길까 겁이나 늦은 저녁 서둘러 집을 꾸러 서울로 돌아왔다.

빈 길을 달리며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와 대면했다. 늘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조짐이 보이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떠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실소했다. 아무 책임도 미련도 없는 가장 행복할 때 그저 편안히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 아닐까? 그동안 주신 은혜만도 넘치도록 감사한데 더 바랄 욕심이 무엇이 있을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다. 주변의 좋은 인연들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봤다. 그 사랑과 고마움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에 돌아왔더니 한 번도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SNS 단체대화방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권사님이 “따끈한 차 자주 마시면서 빨리 회복하라”며 보내주시는 설록차 세트가 현관 앞에서 나를 반겼다.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마다 감동과 감사가 넘친다.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흘려보내며 살아야겠다.

안정하고 따뜻한 차를 우려 마시니 숨쉬기가 조금 편안해졌다. 다음날 자가키트 검사를 해보니 음성이었다. 이비인후과에 다녀오고 한방 병원에서 보신용으로 탕제도 짓고 돌아왔다. 오늘은 한결 편안하다. 늘 떠난 자리가 깨끗하고,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안 주도록 주변 정리를 잘하고 살아야겠다. 나와는 멀게 느껴지던 죽음 앞에 직면해 마지막 이별을 생각하며 돌아갈 본향이 있는 소망의 복된 삶을 선택하였음에 감사한다. 아무 때라도 그분이 불러주시는 때 “아멘”하고 그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믿음 안에 자신을 다스려 가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피할 곳을 열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

신앙에세이

정승철 목사
(북누리공동체)

영화 ‘사일런스’를 본 적이 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던 일본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 원작이고, 거장 마틴 스코세지 감독이 만들었다.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영화다.

이 영화는 1630년경 일본 규슈 지방에 선교하러 온 포르투갈 선교사의 이야기가 배경이다.

당시 일본은 ‘키리시탄(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각했다. 십자가나 예수님 형상에 침을 뱉거나 발로 밟는 배교 행위를 하면 살려주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심하게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했다.

이 영화 주인공은 로드리게스 신부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키치지로’라는 일본 신자가 더 기억에 남는다. 키치지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상황이 위험해지면 십자가에 침을 뱉는 배교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다. 몇 번이고 배교 행위를 했는데 그때마다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의 모습이 비열하기 짝이 없다. 겉과 속이 다르고,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인물이다. 그런데 영화 끝부분에서 그가 몸속 깊이 숨겨둔 십자가가 발견되어 죽임을 당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몇 번이나 배교 행위를 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 나는 키치지로의 모습에서 베드로를 보았다. 그리고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십자가에 침을 뱉고 예수님 형상을 발로 밟는 것만이 배교일까? 마음으로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사

랑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배반이지 않을까?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배교 행위 아닐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면 허무하게 허탕 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배신자였고, 패배자였고, 갈릴리호숫가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주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신

다. 특히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책망하려고 했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었느냐?”고 과거형으로 물어보셨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사랑했었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었다면 세상으로 돌아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태도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하늘에서 오는 지혜

나를 움직이는 내면의 동기가 시기인지 아니면 온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강인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강인함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과 특징이 자랑과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특징은 성결과 화평입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는 자랑과 거짓말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거짓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땅에 속한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이 없으며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중심 첫째, 성결 둘째, 화평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8가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유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과도 유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성결, 거룩입니다. 두 번째가 화평, 하나 됨입니다.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평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성결이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이 첫째요, 그것을 통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팔복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가 먼저고 화평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결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평은 팽개치고 순결만을 추구할 때 분열이 가속화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하고 화평만 추구합니다. 화평만 추구하고 성결을 팽개칩니다. 그때 혼탁하고, 퇴색한 공동체가 됩니다. 성결과 화평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함께 나타납니다. 그 뒤에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등이 나타납니다. 모두 품는 것입니다. 화평의 영역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은 다시 성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중심에 성결과 화평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성결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분열이 자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분리한 사람들끼리 또 분열합니다. 화평만을 강조하면 혼합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섞어버립니다. 때로는 불의까지 말합니다. 옳지 않은 사상까지 섞어서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우선 성결하고 그다음에 화평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한다. 그 뒤에 나오는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을 비춰서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결과 '의'와 '화평'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의와 화평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을 이루지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의와 화평을 누립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중심에 지독한 이기심과 야심이 있어서 자랑과 거짓말, 혼란을 만들어 냅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중심에 온유함이 있어서 성결과 화평을 중심으로 의와 화평을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생각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이끌어 갈 것인지가 나타납니다. 다툼과 분열로 얼룩진 교회 공동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이 대조가 나타납니다. 땅에 속한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중심에 숨겨진 시기과 야심이 있습니다. 거짓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고, 혼란과 악한 행위가 공동체를 물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선한 행실, 거짓 없고 성결

과 화평을 추구하는 공동체는 결국 의를 이루고,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18절).

잠언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지혜가 최고”라고 합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야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구하여 얻듯이, 지혜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기와 야심이 중심에 있는 땅에 속한 마귀적인 지혜로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과 싸움이나 세속적인 정치의 악한 모습을 보면 여지없이 시기와 야심에 의해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기 마련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비참하게 깨어집니다. 그 이면에 시기와 야심에서 비롯된 세속적인 지혜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본 회퍼가 쓴 공동체에 관한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의도가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파괴자가 된다.”

때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은 꿈 같은 소원, 잘못된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시기와 야심을 숨기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참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중심에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결을 우선으로 하면 화평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핍박과 가난이라는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가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오창화 집사
(사회선교부 제이홈,
선한울타리사역)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에 순종했다. 일제침탈에 맞서서 신앙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고,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며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성도들은 새벽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이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환난에 처한 고아와 과부, 나그네이다. 언젠가 보건복지부 고위공직자와 차를 마신 적이 있었다. 그분은 자신은 종교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보건복지

부의 중요 직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면서 교회에 감사하다고 하셨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까?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 개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교회 공동체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일대일로 관계 맺으며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 가족은 두 아이를 입양하면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시설(보육원)에서 자라고 퇴소한 많은 이들을 만났다. 미혼모들도 만났다. 이들은 교회와 국가로부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부족하나마 받고 있다. 그러나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대일의 사랑이다. 고아들에게는 입양하고 위탁할 가정이 필요하고, 미혼모들에게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응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고아사역을 돕겠다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분들에게 “보육원에서 여러 번 헤어짐의 상처에 익숙해져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퇴소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

성도 개인의 이웃사랑!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다. 그러면 많은 분이 회피한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보육 시설에서 ‘원가정 분리 아동’을 18세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보육한다. 입양하고, 위탁할 가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육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약 1만 5천 명이고, 장기 가출청소년이 2만 명 가까이 된다. 고아를 돌보는 3만 가정이 있어야 한다. 따뜻한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원가정 분리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라고 회복될 때 본인들이 꾸릴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3만 가정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있다. 대한민국에는 200만 크리스천 가정이 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권사님들이 함께 자녀를 돌본다면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이 너그러이 세상 가운데 설 것이다.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를 키울 상황이 안 돼서 낳을 수 없다고 한다. 당진 동일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어른신이 일주일 내내 교회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봐준다. 이 교회 젊은 성도들은 평균 3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다.

사회선교부 ‘제이홈’은 입양했거나 입양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아기를 가슴으로 품은 부모들의 모임이다. 아기에게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더 많은 성도에게 입양과 위탁을 홍보하는 사역팀이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역이다. 보육원에 있는 아동에게 가정을 체험시키고, 퇴소한 청년들의 지인과 친척이 되어서 그들의 빈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일대일 사랑이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이웃사랑이 내가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오해했다. 교회는 재정적 지원, 급박한 도움, 행사 등은 할 수 있어도 일대일 사랑은 성도의 몫이다. 고아와 미혼모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가족과 같은 깊은 관계와 돌봄과 사랑이다. 하용조 목사님이 “사랑 없이 빵은 줄 수 있어도, 빵 없이 사랑을 줄 수는 없다”고 하셨다. 사랑도 믿음도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웃을 성도님의 안방과 가슴으로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란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광고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세무 및 회계 1명, 세미나 기획, 홍보, 진행 1명
 형태: 정규직 각 1명(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두란노아버지학교 161기 지원자 모집
 일시: 4월 16일~5월 21일(5월 7일 휴강, 매주 토 오전 10시)
 장소: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강의(ZOOM)
 회비: 10만 원
 접수: 02-2182-9100 / www.father.or.kr
 문의: 박만상(010-2657-1875)
 *아이스쿨에서 등록 가능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웅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는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군포하노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후원품 모집
 내용: 시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면의자 후원 요청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재능나눔 강의봉사단 모집
 내용: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 신중년(60세이상)의 재능 나눔 강의 봉사 진행
 분야: 인문/교양, 독서/글쓰기, 법률/경제, 문화/예술 등
 문의: 김유진 사회복지사(02-6953-7134)

용산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품 모집
 내용: 발달장애인 학습 배치 지원, 손소독제 및 비접촉제 등 계 등 방역용품 후원
 문의: 신경자 행정담당(02-6951-0329)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인생 네컷' 영상제작 스토리 공모
 내용: 55세 이상 서초구민 중 기록하고 싶은 삶의 특별한 순간이 적힌 사연을 가진 4장도 함께 신청
 문의: 김유경 사회복지사(02-6953-7134)

서초구가족센터 '신혼부부교실' 참여자 모집
 내용: 신혼기 점검, 부부 대화 등을 주제로 한 Zoom교육
 일정: 3/26(토)~3/27(일) 10:00~14:00
 신청: 온라인신청(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문의: 교육문화팀 김수경(070-7477-2406)

재정

십일조현금: 하나는은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18-27605
해의선교현금: 하나는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은행 573-910009-99004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자등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3/16(수) 강남C 석태월 권사 부군상 고 권태현
 3/16(수) 한강 임광수 성도 부친상 고 임연석
 3/17(목) 강서 김일수 집사 빙부상 고 김재환
 3/17(목) 마포 이영주 성도 모친상 고 홍소자
 3/17(목) 복누리 송경숙 성도 모친상 고 박월성
 3/17(목) 이수 전보옥 성도 모친상 고 이근실
 3/19(토) 경기A 전순분 안수집사 모친상 고 김향순
 3/19(토) 서초C 고선아 선교사 모친상 고 송월자
 3/20(주일) 도곡 엄진용 성도 모친상 고 서인숙
 3/21(월) 서초B 김진옥 권사 시모상 고 송란
 3/21(월) 마포 이경옥 권사 모친상 고 이옥순
 3/22(화) 강촌 정택구 성도 모친상 고 양동근
 3/22(화) 용산 유인자 집사 시모상 고 시덕남
 3/22(화) 일본어예배 이전홍 성도 모친상 고 박정숙
 3/22(화) 도곡 여동옥 권사 부친상 고 여상길 성도
 3/23(수) 강서 이윤아 집사 부친상 고 이인한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기 위한 캠페인

사랑으로 함께 ²⁰²²

역대 최장기 산불로 인해 함께 예배드렸던 교회와 삶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산불 피해 교회와 이재민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하오니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경북 울진군 호산나교회 전소



경북 울진군 성내교회 전소



모금기간

3월 27일~4월 10일 (15일간)

모금계좌

하나은행 573-910010-60104 (재)온누리선교재단

유의사항

계좌입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6자리를” 꼭 입력해주세요.

예) 김사랑750329

문의

02-796-2243